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 이젠 나의 길을 가는거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수능맛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기록장은 단순히 읽은 책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독서 과정을 성찰하고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유용한 독서 전략이다. 기록이라는 행위는 뇌의 활동을 자극하여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돕고,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정교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 기록장 작성은 수동적인 정보 수용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서 기록장의 효과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줄거리 요약에만 그치면 내용 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깊이 있는 감상이나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기 어렵다. 효과적인 독서 기록은 인상 깊었던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읽은 내용을 자신의 기존 경험이나 다른 텍스트와 연결 지어 의미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든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게 하고, 연결 짓기는 지식의 통합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독서 목적에 따라 기록의 내용과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 습득이 목적이라면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여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비판적 분석이 목적이라면 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물론 독서 기록장 작성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은 자신의 독서 성향을 파악하고 더 나은 독서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준다. 결국 독서 기록장은 읽기의 과정을 가시화하고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 기록장 작성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은 사고를 정교화한다.
- ③ 줄거리 요약 중심의 기록은 비판적 사고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④ 읽은 내용을 다른 텍스트와 연결하는 것은 의미 확장에 도움이 된다.
- ⑤ 독서 목적에 따라 독서 기록의 내용과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2. 밑글에서 강조하는 효과적인 독서 기록장 작성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읽은 모든 책의 줄거리를 최대한 상세하게 요약하여 기록한다.
- ② 정해진 양식에 맞춰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구조화하여 정리한다.
- ③ 책의 정보와 함께 자신의 감상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기록한다.
- ④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기록한다.
- ⑤ 다른 사람의 서평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평가 위주로 기록한다.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기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독서 목적] 소설 속 주인공의 성격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

[독서 기록 내용]

1부 (1~10장) 요약: 주인공 '민준'은 시골에서 상경하여 공장에 취직함. 고된 노동과 도시 생활에 힘들어하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음.

2부 (11~20장) 요약: 회사 동료의 배신으로 위기에 처함. 냉담한 도시 인심에 상처받고 점차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함.

인상 깊은 구절: "결국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8장) -> 도시 생활의 비정함을 잘 보여주는 구절 같음.

전체 감상: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다. 나중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 ① 독서 목적 달성을 위해, 각 부의 내용을 주인공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은 텍스트의 서사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되겠군.
- ② 인상 깊은 구절을 선택하고 '도시 생활의 비정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텍스트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③ 주인공의 성격 변화 동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는 활동이 없어, 텍스트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군.
- ④ 전체 감상에서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 것은, 기록 형식의 제약을 벗어나 개인적인 정서 반응을 담아내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주인공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인상적인 구절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형식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보화가 진전된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넘쳐나는 정보를 접하며 판단을 내린다. 이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포장하여 전달하는 허위 정보는, 단순한 오류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인식 체계를 왜곡시키며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가진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며, 이는 단순한 오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수준에 이른다.

허위 정보의 확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성향과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는 정보를 더 선호하고 그와 다른 정보는 배제하려는 성향을 강화하는 확증편향을 부추긴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구조적 특성상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정보일수록 공유되는 빈도가 높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자극적이고 긍정적인 정보가 우선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보다는 정보의 호소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세 요인이 결합하면서 허위 정보는 진실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되고 더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허위 정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가 아니다. 허위 정보에 기반한 여론은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허위 정보의 유통을 단지 개인 표현의 문제로만 보기에 어렵다. 미디어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허위 정보 문제는 결국 단순히 정보의 사실 여부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①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한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문제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허위 게시글이나 허위 기사로 인해 특정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면, 해당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허위 정보 유포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예컨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안에서 일정한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즉, 법은 허위 사실을 무조건 억압하기보다, 그 행위가 ②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다.

한편 형사상 허위 사실 유포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한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 250조」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유통되면 국민의 판단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형사상 허위 사실 유포는 실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성립 요건은 민사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따진다. 행위자가 단순한 착오나 불분명한 판단이 아니라 정보의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이 선거 결과나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소문 수준의 사적 발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중 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 유포의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은 형사처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러한 형사상 처벌에 대해 ③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치적 발언이나 비판의 영역에서 허위와 의견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선거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주장이 경쟁하는 장이며,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충분하며, 공개적 반박이나 신속한 정정보도 제도 같은 대응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④이에 대한 반론으로, 허위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므로 강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다.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되고, 선거 결과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대의 온라인 환경에서는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사후적 정정보도나 반론권만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선거에 한해서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의 확증 편향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 정보의 영향력을 줄인다.
- ② (가): 허위 정보의 유통은 개인 표현의 문제이므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더라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③ (나):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 목적의 정보라면 그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항상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 ④ (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 ⑤ (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처벌 찬성론자들은 유권자가 허위 정보 속에서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5. 허위 정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사회적 파급력은 미미하다.
- ② 정보의 출처보다 호소력에 주목하는 이용자 성향 때문에 발생한다.
- ③ 법적 책임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주로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
- ④ 사실 검증보다는 감정적 자극을 우선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쉽게 확산된다.
- ⑤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허위 정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허위 사실 유포라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에는 차이가 있겠군.
- ② ㉡이 ㉠보다 성립 요건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때문이겠군.
- ③ ㉠과 ㉡ 모두, 선거에 큰 영향이 없는 허위 정보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군.
- ④ ㉠과 ㉡ 모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⑤ ㉠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 하락이라는 결과에, ㉡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위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을 묻는다고 볼 수 있겠군.

7. ㉢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환경 단체가 특정 기업의 공장 폐수가 수질 오염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다가, 실제 측정치는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② 언론사가 유력 정치인의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일부 증언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전달했으나, 해당 의혹 자체가 틀린 사실은 아니었다.
- ③ 소비자가 새로 출시된 전자 제품의 발화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으나, 이후 실험 결과 특정 조건에서만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로 확인되었다.
- ④ 특정 정치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해당 정치인의 지지율이 급락하였다.
- ⑤ 내부 고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비윤리적인 회계 관행을 폭로하면서 일부 재무 수치를 착오하여 다르게 기재하였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한 ㉣, ㉤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례 1: 방송인 갑은 평소 근거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을은 갑의 과거 발언 중 하나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갑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였다. 갑은 이 글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나, 방송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지는 않았다.

사례 2: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 병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이 퍼졌다. 정은 친구에게서 그 소문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소문이 돈다’는 식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상대 후보 무의 선거 캠프는 정의 글을 발견하고, 이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퍼뜨리며 병 후보를 비방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① ㉣는 [사례 1]에서 을의 행위가 갑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도,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민사상 책임으로 충분하다고 보겠군.
- ② ㉤는 [사례 1]에서 을이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글을 작성했으므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겠군.
- ③ ㉣는 [사례 2]에서 정이 친구에게 들은 소문을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할 때와 달리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겠군.
- ④ ㉤는 [사례 2]에서 무 측이 허위 소문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사후 보도로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겠군.
- ⑤ ㉣와 ㉤ 모두 [사례 2]에서 정행위보다 무 측의 행위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져 보고 행동을 결정하였다.
- ② 아이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따져 물으며 떼를 썼다.
- ③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관련 증언들을 면밀히 따져 보았다.
- ④ 그는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지곤 하였다.
- ⑤ 물건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 봐야 후회가 없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능형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용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봇이 있다.

인공지능 챗봇은 대량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입력된 문장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초기의 단순한 규칙 기반 챗봇은 미리 설정된 문장만을 출력했으나, 현대의 챗봇은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 문맥과 어조, 의미적 연관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며, 단어 간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표현 공간 안에서 문맥적 유사성을 계산한다.

챗봇은 학습을 통해 얻은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하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내일 비 올까?”라고 입력하면, 챗봇은 이를 [A] ‘날씨 정보 요청’으로 분류한 뒤,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지역의 예보 데이터를 불러와 문장 형태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챗봇은 입력 해석, 정보 검색, 문장 생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챗봇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질과 더불어 연산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충분한 양의 데이터는 언어의 다양성과 문맥적 패턴을 포착하게 하여 모델의 표현력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사전학습과 데이터 증강 기술이 활용된다. 사전학습은 대규모 일반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 구조 전반을 학습하게 하여, 이후 특정 영역에서도 기초적 언어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데이터 증강은 기존 데이터를 변형·조합해 새로운 학습 예시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학습 효율을 높인다.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 데이터의 양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이해 능력을 강화한다.

데이터의 질은 챗봇 응답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이즈나 편향이 포함된 데이터는 오답을 학습시킬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메인별 파인튜닝, 휴먼-인-더-루프 검증, 그리고 편향 완화 기술이 도입된다. 파인튜닝은 목적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를 중심으로 추가 학습을 진행하여 특정 분야의 응답 정확도를 높이고, 휴먼-인-더-루프에서는 인간 검증자는 잘못된 출력이나 오류 데이터를 직접 수정함으로써 데이터 정제 과정을 완성한다. 또한 편향 완화는 모델이 사회적 편향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학습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응답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연산 능력은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모델 구조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다. 모델이 아무리 정교해도 연산 자원이 부족하면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응답 품질이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접근으로는 경량화, 지식 증류, 효율적 아키텍처 설계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모델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핵심 성능을 유지하여 계산 효율을 높인다. 동시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검색 기반 보장은 기존 모델 구조를 유지한 채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참조하여 응답의 적합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나아가

멀티모달 처리나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동 기술은 텍스트뿐 아니라 다양한 입력 정보를 활용해 실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결국 연산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챗봇의 실시간 응답성과 적용 가능성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다.

10.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지능 챗봇은 사용자의 입력에 응답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 ② 초기 챗봇과 현대 챗봇은 작동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③ 챗봇의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가?
- ④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모델은 최초로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가?
- ⑤ 학습 데이터의 질이 낮을 때 챗봇의 응답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1. 밑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기의 챗봇은 자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 ② 사전학습은 미리 수집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제작하는 학습 예시의 양이 달라질 것이다.
- ③ 파인튜닝은 학습한 분야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 ④ 멀티모달 처리는 텍스트 정보만을 처리할 때보다 더 복잡한 연산 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⑤ 효율적 아키텍처 설계는 모델을 경량화하여 응답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챗봇은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②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 유형에 따라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챗봇은 사용자의 발화 분석과 정보 검색을 동시에 진행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한다.
- ④ 챗봇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답변할 문장 형태를 학습하여 출력한다.
- ⑤ 챗봇은 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답변과 동일한 문장 구조로 답변을 생성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대화에 나타난 챗봇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p>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였어?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p>	<p>사용자</p>
<p>조선 시대 왕 27명의 평균 수명은 약 46세였습니다. 이는 당시 일반 사대부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낮은 편인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일부 왕들의 방탕한 생활 습관 등이 꼽힙니다. ☺</p>	<p>챗봇</p>
<p>오 흥미롭네. 그럼 혹시 조선 시대 왕 중에 '테니스 엘보'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어?</p>	<p>사용자</p>
<p>음... 조선 시대 기록에는 '테니스 엘보'라는 현대 의학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왕들이 팔꿈치 통증이나 유사한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과로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 엘보'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p>	<p>챗봇</p>
<p>그렇구나. 혹시 최근 개봉한 영화 '인공지능의 눈물' 줄거리 요약해 줄 수 있어?</p>	<p>사용자</p>
<p>죄송합니다. 저는 2023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하여 그 이후의 최신 영화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p>	<p>챗봇</p>
<p>알겠어.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p>	<p>사용자</p>
<p>프로그래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꾸준한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물론 끈기, 끈감함과 논리적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필수적이죠! 특히 남성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강점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p>	<p>챗봇</p>

- ① 왕들의 평균 수명과 이유를 답할 수 있는 것은, 파인튜닝된 고품질 데이터 덕분에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군.
- ② '테니스 엘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사전 학습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답변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 기반 보강으로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먼-인-더-루프를 통해 연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군.
- ④ 최신 영화 정보를 모르는 것은 데이터 증강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군.
- ⑤ 프로그래머 자질 답변 시 특정 성별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데이터 양으로 인한 것으로, 편향 완화를 통해 데이터의 질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철학자 스트로슨은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인격으로 남아 있다'고 느끼는 현상을 단순한 심리적 연속성이나 기억의 지속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인격을 개별적인 의식의 흐름으로 환원하는 기존 논의들이,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인격이란 의식의 흐름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와 사고가 결합된 구체적 실존이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격 동일성이란, 기억이나 의식이 동일하다는 내면적 근거나 사고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체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하나의 인격 주체로 인식되는 방식에 의해 성립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의 동일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며, 그 인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조건 안에서 ①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의 연속성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의식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기억하는 한, 그 인격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로크의 관점에서 신체의 변화나 영혼의 존재 여부는 부차적 문제일 뿐, 핵심은 기억을 통해 이어지는 자아 인식이다. 그러나 스트로슨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억은 인격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동일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기억은 언제나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지니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동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인격 동일성을 심리적 연속성이나 물리적 동일성 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가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되는 것은, 기억이나 신체의 지속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의식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통합되어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격 동일성은 개인 내부의 심리적 연결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식받는 관계의 구조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14. 윗글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트로슨은 어떤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상이나 위치와 무관하다고 본다.
- ② 로크에게 있어, 신체는 그대로지만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인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③ 스트로슨은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억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 ④ 스트로슨의 입장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의 의식이 이어지는 것은 인격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스트로슨과 로크는 모두 어떤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신체적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를 동일한 인격의 근거로 볼 것이다.

15. ㉠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개인의 내면적 기억이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동일한 인격체로 존속함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 ② 기억은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격 동일성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 ③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억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격 동일성을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 ④ 인격 동일성은 기억의 오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신체의 물리적 연속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 ⑤ 기억이 왜곡되더라도 한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 인식만 지속된다면 인격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윌리엄스는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 단순히 논리적 기준을 찾는 것을 넘어 '나'의 생존에 있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라는 실존적 물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심리적 연속성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특정한 신체와의 연속성에 깊이 의존한다. 내가 미래에도 여전히 '나'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의 심리 상태가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이 몸이 계속 존재하며 경험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연속성이 단절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적인 자기 인식과 충돌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 ① 윌리엄스는 로크와 달리, 어떤 사람의 기억과 의식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간다면, 원래의 인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겠군.
- ② 윌리엄스는 스트로슨과 마찬가지로, 인격 동일성 논의에서 신체가 수행하는 역할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의 운반체 이상임을 강조하였겠군.
- ③ 윌리엄스는 로크와 달리, 기억은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심리적 연속성만으로는 인격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하겠군.
- ④ 스트로슨은 윌리엄스와 달리, 인격 동일성이 한 개인의 신체적 연속성이라는 내적 조건뿐 아니라, 그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겠군.
- ⑤ 로크는 윌리엄스와 달리, 극단적인 신체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만 연속된다면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겠군.

17. ㉡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존된다
- ② 지속된다
- ③ 형성된다
- ④ 강화된다
- ⑤ 변화된다

〔18-2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구한말, 탐관오리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한덕문은 논 스무 마지기 중 열 세 마지기를 뇌물로 바친다. 일제의 국권 피탈 이후, 노름빚에 시달리던 덕문은 나머지 논을 팔기로 결심한다.

〔A〕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생각잖이, 외가편으로 아저씨뻘 되는 윤침지가 푸퉁 거기에 당도하였다. ㉡윤침지는 황등장터에서 제 논석지기나 지니고 탁실히 사는 농민이었다.

〔B〕 아저씨 웬일이시냐고, 조카 잘 있었느냐고, 향용 하는 인사가 끝난 후에 이 동네 사는 길천이라는 일인이 값을 후히 내고 땅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적실하냐고 아까 한덕문이 ㉢전주집더러 묻던 말을, 윤침지가 한덕문더러 물었다. 그렇단다는 ㉣한덕문의 대답에, 윤침지는 이윽고 생각을 하고 있더니 혼자말같이,

㉠"그럼 나두 이왕 그자한테다 팔아야 하겠군."

하다가 한덕문더러,

"황등이까지 가서두 살까? 예서 이십 리나 되는데."

하고 묻는다. / "글쎄요…… 건데 논은 어찌 파실 영으루?"

"허, 그거 온 참…… 저어 공주 한발서 무안 목포루 철로가 새루 나는데, 그것이 계룡산 앞을 지나 연산·팔거리루 해서 논메·강경으루 나와 가지구, 황등장터를 지나게 된다네그려."

"그런데요?"

"그런데 철로가 난다 치면 그 십 리 안쪽은 논을 죄 버리게 된다는 거야." / "어째서요?"

"차가 댕기는 바람에 땅이 울러 가지구 모를 심어두 뿌릴 제대루 잡지 못하구 해서, 벼가 자라질 못한다네그려!"

㉤"무슨 그럴 리가……."

"전 조카가 속을 몰라 하는 소리지. 속을 몰라 하는 소리인 것이, 나두 작년 정월에 공주 한발엘 갔다 그놈 차가 철로 위루 달리는 걸 구경했지만, 아 그 쇳덩이루 만든 집첻더미 같은 시꺼먼 수레가 찾길 위루 벼락치듯 달리는데, 땅바닥이 사뭇 움죽움죽하드라니깐! 여승 지진이야…… 그러니, 땅이 그렇게 지동하듯 사철 들이 울리니, 근처 논이 모가 뿌리를 잡을 것이며, 자라기를 할 것인가?" / "……"

듣고 보니 아닌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말이였다.

"몰랐으면이거니와 알구두 그대루 있겠던가? 그래 좀 덜 받더래두 팔아넘길 영으루 하구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 ㉥길천이라는 손이 요새 값을 시세보담 갑절씩이나 내구 논을 산다데나그려. 정녕 그렇다면 철로 조간이 아니라두 팔아 가지구 댕 데루 가서 판 논 갑절 되는 논을 장만함직두 한 노릇인데, 향차……."

㉔“철로가 그렇게 난다는 건 아주 적실한가요?”

“말끔 다 칩량을 하구, 말뚝을 박아 놓구 한결…… 황등장터 그 일판은 그래, 논들을 못 팔아 난리가 났다니까.”

[C] 일인 길천이에게 일곱 마지기 논을 일백마흔 냥에 판 것과, 그 중 쉰 냥은 빚을 갚은 것, 이것까지는 한덕문의 **예상대로** 되었었다. 그러나 나머지 아흔 냥으로 판 논 일곱 마지기보다 토리가 못하지 아니한 논으로 두 마지기가 더한 아홉 마지기를 삼으로써 빚 쉰 냥은 공으로 갚고, 그러고도 논이 두 마지가 붙게 된다던 것은 완전히 **허사가 되고** 말았다.

[D] 아무도 한덕문에게 상담 한 마지기를 열 냥씩에 팔려는 사 람은 없었다. 이왕 일인 길천이에게 팔면 그 갑절 스무 냥씩을 받는 고로 말이였다.

필경 돈 아흔 냥은 한덕문의 수중에서 한 반년 동안 구르는 동안 스실사실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한덕문은 논 일곱 마지기로 겨우 빚 쉰 냥을 갚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손 짹 짹 털고 나선 셈이였다.

(중략)

[E]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 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생원은 그 논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였다. 물론 한 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 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 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㉕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한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였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딴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 는구?” / ㉖“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 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 “그렇죠.”

“흥, 가만 뒤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 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아서 팔아먹어? 그 따위 행사가 어딴단가?”

㉗“한 생원은, 그 논이랑 밭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 으니깐 입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깐, **도루 내 것이 왜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루 들어?”

“한 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흥, 둘러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보게나. 핑계 없는 무 덤 있단가? 저,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논 열두 마지기 뺏을 제두 핑젠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렐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 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두록 처단을 하겠죠.”

“일없네.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 년두 나라 없이 살아왔을려드냐. 아—니 글썸, 나라가 있으면 백 성한테 무얼 줌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 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났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

그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자말로,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 채만식, 「논 이야기」 -

18. [A]~[E]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서술자가 인물의 신분이나 거주지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 시하며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 ② [B]: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없이 서술 하여, 인물이 기존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C]: 특정 인물의 계획과 그 결과를 시간 경과에 따라 요약적 으로 제시하며, 인물의 기대와 달라진 현실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④ [D]: 앞선 내용의 원인을 설명하며, 특정 인물의 시각에 기대 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E]: 인식 주체를 명시하는 표현을 생략하여, 서술자의 시선과 인물의 시선이 겹쳐 나타나고 있다.

19. ㉕~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 윤침지가 철로 부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준다.
- ② ㉖: 한덕문이 철로가 부설된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해 윤침지 의 말을 반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㉗: 한덕문이 윤침지의 설명을 듣고 철로 부설 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회의적인 입장임을 보여준다.
- ④ ㉕: 구장이 한 생원의 분노에 공감하며 새로운 국가 정책에 대 한 비판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㉗: 구장이 돈을 받고 땅을 판 행위를 근거로 들어, 해당 논의 소유권이 한 생원에게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㉕~㉗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㉕가 ㉗에게 질문한 내용은 ㉕와 관련된 내용으로, ㉗가 ㉕에게 질문한 내용과 같다.
- ② ㉕와 ㉗는 모두 ㉕에게 논을 팔 결심을 하고 있으나, 그 결정에 대한 주체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③ ㉗는 논을 도로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㉕에게 항의를 하며, ㉕ 는 상황의 시급성을 바탕으로 ㉗를 설득하고 있다.
- ④ ㉕는 ㉕와 같은 인물의 재산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
- ⑤ ㉗는 ㉕와 거래를 했으며,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㉕와 대립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해방 직후는 기존의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적 규범이 모색되던 격변기였다. 이 시기, 과거의 경제적 재산 소유 관념에 익숙했던 일부 인물들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변화된 사회 구조나 새롭게 등장한 법질서를 받아들이기보다, 지난 시대에 겪었던 개인적인 피해의 회복이라는 사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 ① 윤치지가 전하는 ‘철로’ 소문을 듣고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판단하는 것에서,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한덕문이 ‘예상대로’ 논을 팔았으나, 이후의 계획이 ‘허사가 되고’만 것에서, 과거의 관념을 기준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의 목표가 좌절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한덕문이 자신의 논을 ‘도로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은, 개인적인 목표가 역사적 전환이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④ 한덕문이 논에 대해 ‘도루 내 것이 돼야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새로운 법질서를 외면한 채 과거의 소유 관념에 기반한 사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한덕문이 ‘만세 안 부르기,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 피해 회복이 좌절되자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와룡산(臥龍山) 내린 아래 반무당(半畝塘)* 새로 여니
티 없는 거울에 산영(山影)이 잠겼구나
이 내의 경영(經營)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제1수>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綠陰)이 난다
금수(錦繡) 추산(秋山)에 밝은 달이 더욱 좋다
하물며 백설(白雪) 창송(蒼松)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제8수>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붉은 노을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드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상산 늙은 할아버가 채지가를 부르더니
천년 뒤 지곡에서 나도 늙어 부르노라
옛 사람 즐기던 맛을 이내 마음이 알리로다

<제15수>

- 김득연, 「산중잡곡」 -

*반무당: 조그만 연못

(나)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정(世情)도 모르고 인사(人事)에 우환하여
㉠공명부귀(功名富貴)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빈천기한(貧賤飢寒)을 일생(一生)에 겪어 있어
낙천지명(樂天知命)을 예 잠깐 들었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있어 우연(偶然)히 들어오니
득상(得喪)도 모르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를 못 듣거니 출척(黜陟)*을 어이 알까
(중략)

이끼 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보며
㉢그늘진 송근(松根)을 베고도 누워 보며
한담(閑談)을 못다 그쳐 산일(山日)이 빗겨지니
심승(尋僧)*을 언제 할고 채약(採藥)이 저물거다
그도 번거로워 떨치고 걸어 올라
두 눈을 치켜뜨고 만 리를 돌아보니
외로운 따오기는 오며 가며 다니거든
㉣아득한 속세는 눈 속에 티끌이로다
부귀공명 잊었거니 어조(魚鳥)나 날 대하랴
낙시터에 내려 앉아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술동이를 기울여 취토록 혼자 먹고
흥진(興盡)을 기약하여 석양(夕陽)을 보낸 후에
강문(江門)에 달이 올라 수천(水天)이 일색인 제
㉤만강풍류(滿江風流)를 한 배 위에 실어 오니
표연천지(飄然天地)에 걸린 것이 무엇이라
두어라 이령성그러 늙어간들 어이하리

- 조우인, 「매호별곡」 -

*벽: 습관

*출척: 쫓겨나거나 등용됨

*심승: 중을 찾음. 여기서는 부처를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됨.

22.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대비하여 자연 속 풍경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자연물과 정서를 일치시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는 화자가 만든 인공물에 비친 산의 모습을 감상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 ② <제3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며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보여준다.
- ③ <제8수>는 계절의 변화를 바탕으로 변치 않는 자연의 속성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④ <제14수>는 속세를 떠나 이상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 ⑤ <제15수>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겼던 옛사람의 행위와 화자의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된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며,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 ② ㉡: 화자가 자연에 대한 오랜 애착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왔음을 드러내어, 귀의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자연물에 기대어 소박하게 휴식을 취하며, 세속적인 격식이나 번거로움에서 벗어난 한가로움을 보여준다.
- ④ ㉣: 화자가 속세의 일들을 자신과는 무관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세속적 가치의 고통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자연과 하나 되어 즐긴 충만한 흥취를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는 모습에서, 물아일체의 만족감을 보여준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고전 시가에서 선비들이 자연을 노래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는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낀 화자가 출사를 거부하고 자연 속 공간을 능동적으로 꾸리며 그 아름다움 속에서 긍정적 흥취와 만족감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나)는 유배에서 풀려난 화자가 자연을 안식처로 삼고, 세속적 가치로부터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자연 속에서의 한적함이나 정신적 자유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반무당 새로 여’는 것에서, 머무는 공간을 능동적으로 꾸미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스스로를 ‘무릉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공간에 이상을 투영하여 자연과 합치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③ (나)에서 ‘출척을 어이 알까’라고 한 것은, 세속적 가치와 정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④ (나)에서 ‘심승을 언제 할고’라고 한 것은, 자연을 안식처로 삼아 현실적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⑤ (가)는 ‘옛 사람 즐기던 맛’에서, (나)는 ‘늙어간들 어이하리’에서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추 초순은 죽은 설 부인의 생일이다. 혜화 소저도 와서 차례를 지냈다. 차례를 마친 후 두쌍성과 혜화 소저가 옛일을 추억하니 눈물이 옷을 적셨다. 두쌍성은 다시 별채로 갔다. 두쌍성이 기운 없는 것을 본 나교란이 말하였다.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아시고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진작부터 드리려고 하다가 감히 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르신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호 부인께서 어르신을 타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신 설 부인 마님을 원망하면서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년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막지 않아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또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세를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노여움이 발하면 제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시고도 불결한 음식으로 ㉢제자를 받들게 되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죽은 설 부인에게 불경한 것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두쌍성은 **모꼴이 송연하였다**.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두어 그릇 제물을 담아 가져오라 하였다. 이미 간교함이 들어맞게 되자,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갯속에 갇힌 두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두쌍성이 친히 젓가락을 들고 헤쳐 보니 그릇마다 한 움큼 머리 카락이 들어 있었다. 두쌍성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호 소저에게로 가니 나교란과 여섬요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중략 줄거리] 호 소저를 집에서 쫓아낸 두쌍성은 후일 두 첩의 악행을 알고 두 첩을 추방한다. 한편 서하가 침공하자 두쌍성은 원수가 되어 참전하나, 적에게 독화살을 맞고 중태에 빠지고, 이 소식을 들은 호 소저는 변장한 채로 두쌍성을 찾아 간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헤아리며 통증을 참고 외로이 누워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형산의 옥을 두드리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어찌나 반가운지 눈을 들어 보니, 두 명의 도사가 좌우에서 병을 살피고 있었다. 의원인 줄 알고 물었다.

“도사는 어느 곳 사람이며 도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능히 저의 상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도호는 추운사라고 합니다. 상처를 보여 주시면 스승께서 치료해 볼 신술이 있을 것입니다.”

두쌍성이 그 이름에 구름 운 자가 들어 있음을 신기하게 여기고 말했다.

“제가 지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도사께서 스스로 풀어 보십시오.”

호 소저가 마지못하여 맨 것을 풀어 보니, 심약한 사람은 놀랄 정도로 독기가 검푸르게 가득하였다. 안색이 자연히 변하자 두쌍

성이 물었다.

“도사의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 구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호 소저가 즉시 얼굴을 편안히 하며 말하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장군께서 건디시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장군께서 능히 뼈를 깎는 화타의 수술을 건딘 관우만큼 기상이 군세다면 제가 감히 **화타의 남은 재주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록 약하나 장군이 되어서 어찌 그만한 일을 건디지 못하겠습니까? 도사께서는 마음대로 치료하십시오.”

호 소저는 두쌍성을 붙들어 책상에 등을 기대게 하고, 은낭으로 하여금 팔을 잡게 하였다. 앞에 은쟁반을 놓고 금침으로 상처를 찌르려 하니, 송나라의 여러 장군이 장막 밖에서 둘러 서서 듣다가 말하였다.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어찌 산간 도사에게만 맡기겠는가? 우리들이 들어가 참관하리라.”

여러 장군들이 들어오려고 하자 은낭이 두쌍성에게 고하였다.

“사람이 많으면 스승께서 실수하기 쉬우니, 대장군께서는 금하여 주십시오.”

두쌍성은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한 후, 치료하기를 재촉하였다. 호 소저가 상처를 찢고 헤치며 독이 퍼진 곳을 따라 살을 자르고 죽은 피를 뽑아내니 흰 뼈가 은은히 보였다. 두쌍성은 통증을 참으며 **평상시처럼 한담을** 하고 있었다. 호 소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손을 쓰면서도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거의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자 두쌍성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도사는 심약한 사람입니다.** 건디지 못하는 것이 저보다 더합니다.”

은낭이 대답하였다.

“스승님의 **성품이 지나치게 인자하여**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를 면치 못하십니다.”

㉔두쌍성은 말마다 제자가 대신 대답하는 것을 궤이히 여겨 도사와 말을 하고 싶어 물었다.

“도사의 성과 본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호 소저는 두쌍성이 천만의외로 성을 묻는 것에 당황하여 급히 답하였다.

“천한 성은 박주 진씨입니다.”

“화산 운대관의 진도남 선생과 동족이로군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장모와는 몇촌이나 되십니까?”

“귀인의 집이 어디입니까?” / “위주 호 어사 댁이니 도사께서 일찍이 출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A] “그 부인이 저와는 먼 친척입니다. 혼자인 몸으로 가까운 친척이 없어 어렸을 때 두어 번 갔습니다.”

인하여 어머니 진 부인의 안위를 알고자 하여 물었다.

“풍문에 듣자니 그 부인께서 북으로 귀양가셨다고 하는데 돌아오셨는지요? 또한 친척 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무탈한지요?”

“장모께서는 이번 봄에 임금님의 용서를 받아 위주로 평안히 돌아가셨고, 처남은 벌써 급제하였습니다.”

호 소저는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으나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다.

- 작자미상, 「청백운」 -

26.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발언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래 의도를 숨긴 채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고 있다
- ②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상대방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③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며 서로에게 공감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는 추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7. [제2]의 서사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인공의 결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 ② 인물의 숨겨진 악한 본성을 드러내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
- ③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암시하여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 사건을 예고한다.
- ④ 인물의 효심을 시험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⑤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화해의 장을 마련한다.

28.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상대방의 효심을 자극하면서, 이어질 참소의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그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㉓: 서술자가 인물에 초점을 두고 논평하여, 인물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질문을 받은 대상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
- ⑤ 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여, 인물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3점]

〈 보 기 〉

「청백운」은 처첩 갈등이나 영웅의 활약 같은 고전소설의 관습적 서사를 따르면서도, 인물 형상화에 있어 당대의 새로운 시대 인식을 보여준다. 남성 주인공은 이성적 판단보다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며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지만, 주인공의 영웅적 권위가 아닌, 위기에 처한 주인공과 그를 구원하는 여성 인물 간의 인격적 소통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감정에 충실한 새로운 인간상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 ① 두쌍성이 '모골이 송연하였다'는 것에서, 이성적 사실 확인에 앞서 사적인 감정이 자극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호 소저가 '화타의 남은 재주를 다'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위기에 처한 주인공과 소통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두쌍성이 '도사는 심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농담을 건네는 것에서, 영웅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살피며 소통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낭이 추운사의 떨림을 '성품이 지나치게 인자하여'라고 말하는 것에서, 감정적 동요를 긍정적 가치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인간상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두쌍성이 통증을 참으며 '평상시처럼 한담을' 나누는 것에서,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어 위기를 벗어나는 관습적 서사 양식을 확인할 수 있군.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다 여기로 오라
내 책상다리를 하고 꽃꽂이 허리를 펴고 앉아
가끔은 소맷자락 긴 손을 이마에 대고
하마 그대 오시는가 북녘 하늘 바다만 바라보나니
오늘은 새벽부터 야원 통통배 한 척 지나가노라
새벽별 한두 점 떨어지면서 슬쩍슬쩍 내 어깨를 치고 가노라
오늘도 저 멀리 큰 섬이 가려 있어 안타까우나
기다리면 님께서 부르신다기에
기다리면 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기에
④연북정 지붕 끝에 고요히 앉은
아침이슬이 되어 그대를 기다리나니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대의 사랑도 일생에 한 번쯤은 아침이슬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갖게 되기를

- 정호승, 「연북정(戀北亭)」 -

(나)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들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들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들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들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끝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

(다)

‘언제나 나무 있는 뜰 안을 거닐며 살아 보나’ 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매, 그때는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가지에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조석(朝夕)으로 아쉽던 그 봄, 요즘은 그 봄이어서 아침마다 흰하면 일어나 뜰을 거닌다. 진달래나무 앞에 가서 한참, 개나리 나무 옆에 가서 한참, 살구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 밥상을 대하면 눈엔 아직 붉고 누른 꽃만 보이었다. 눈만 아니라 코에도 아직 꽃향기였다.

그러던 꽃이 다 졌다.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 아침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며 바라보던 꽃이 간밤 비에 다 떨어져 흩어졌다. 살구꽃은 잎잎이 흩어졌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송이째 떨어져 었어도 지고 자빠도 졌다. 그중에도 **엮어진 꽃**이 더욱 마음을 찢었다.

가만히 보면 엮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가지에 달려서는 소곤거리지 않는 송이가 없는 것 같더니, 떨어진 걸 보니 모두 침묵이요, 적막이요, 슬픔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كم도 죽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삶도 아니요,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다.

⑤낙화(落花)의 적막!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처럼 마음을 찢려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꽃이 열릴 나뭇가지는 자주 손질을 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피주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놓일 자리가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과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다.

낙화는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거니와 낙화야말로 더욱 불 만한 꽃인가 싶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몸이라 가지에 달려서보다 더욱 박명(薄命)은 하리라. 그러나 떨어진 꽃의 그 적막함, 우리 동양인의 심기로 그 적멸의 경지에서처럼 **위대한 예술감**이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낙화는 한번 보되 그 자리에서 천고(千古)를 보는 양, 우리 심정에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그런 낙화를 위해 나무 아래의 거칠음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시금 부끄럽다.

- 이태준, 「낙화의 적막」 -

3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다)는 모두 부재하거나 소멸하는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자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③ (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는 현재 대상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나)는 대상의 생산적 측면을, (다)는 대상의 미학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관찰하는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다.

3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기다림에 임하는 굳건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새벽별’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을 ‘아침이슬’에 비유하여 기다림 속 화자의 덧없고 연약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질문 형식을 활용하여 사랑에 있어 기다림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통해 기다림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큰 섬’이라는 장애물을 제시하여 대상과의 만남이 불가능함을 암시하며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문학 작품 속에서는 자연 현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독특한 인식이 드러나곤 해요. (나)에서는 평범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다)에서는 자연 현상을 겪으며 글쓴이의 감상과 성찰이 심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요.

- ① (나)는 ‘노란 꽃’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에, (다)는 ‘뜰 안’이라는 공간에 투영된 소망에 주목하여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있다.
- ② (나)는 ‘그들도 노랗다’에 주목하여, (다)에서 글쓴이는 ‘엮어진 꽃’에 주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넓어지는 땅’에 주목하여 그들이 지닌 생명력을, (다)는 ‘모두’에서 인식의 확장을 통해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나)는 ‘다섯 되 무개’에서 그들의 양감(量感)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인식을, (다)는 ‘위대한 예술감’에서 낙화에 대한 미적 감상이 심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의 배려심을 강조하는 인식을, (다)는 ‘부끄러움’을 인식함으로써 나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는 종종 가치나 의미가 발생하는 방식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보여준다. 부재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내면적 행위, 즉 기다림이나 그리움 자체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간과되기 쉬운 대상이 지닌 숨겨진 의미나 생산성에서 가치를 찾기도 한다. 전자가 주체의 정서적 깊이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대상의 객관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자신을 ‘아침이슬’에 비유하며 기다리는 것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내면적 행위 자체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기다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내면적 행위가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한 해 농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대상이 지닌 숨겨진 생산성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이었겠군.
- ④ (나)에서 화자가 ‘꽃은 하늘’에서, ‘그늘은 땅’에서 피고 넓어지는 것으로 대비한 것은, 표면적 현상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의미에 주목하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화자가 ‘통통배’나 ‘새벽별’을 바라보는 것은, 외부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대상에 대한 내면의 그리움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34.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글쓴이의 의식이 집중되어 내면 성찰이나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 ② 대상의 부재나 소멸에서 비롯되는 상실감과 슬픔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③ 화자와 글쓴이가 현재 머무르거나 경험하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 ④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지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⑤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현재 상황과 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수능맛집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000입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한옥은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담아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한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땅을 다져 만든 기단 위에 나무로 기둥과 보를 세워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화면 1) 보시는 것처럼,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무 부재들을 서로 끼워 맞추는 결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나무가 계절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는 특성을 고려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기단은 집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건물을 받쳐주면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단 위에 세워진 기둥과 기둥들을 가로로 연결하는 보는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 2) 이 사진처럼, 복잡하지만 견고하게 짜 맞춰진 구조는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옥의 인상을 결정짓는 지붕을 빼놓을 수 없죠. 한옥 지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처마입니다. 처마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강한 햇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낮은 각도의 햇빛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여 따뜻하게 해주는 과학적인 기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을 통해 한옥의 구조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 친화적인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고궁이나 한옥 마을을 방문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며 한옥의 구조를 직접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발표 순서를 안내한 후, 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의 계획표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계획 내용
처음	발표 시작 시, 청중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 던지기
중간1	한옥의 기본 구조 설명하기
중간2	한옥 건축에 사용된 주요 자연 재료의 종류 나열하기
중간3	한옥 지붕의 특징 설명하기
마무리	발표 마무리 시, 발표 내용과 관련된 활동 제안하기

- ① 처음 단계에서 매체를 통해 바라본 한옥이 주는 정서적 기능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② 중간1에서 (화면 1)을 활용하여 나무의 특징을 활용한 한옥의 건축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중간2에서 기존 계획을 바꿔 한옥의 구조를 상세히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중간3에서 계절에 따른 한옥의 지붕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마무리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지은 활동을 직접 수행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37.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한옥이 자연 재료를 쓴다는 건 알았는데, 결구 방식처럼 나무의 특성까지 고려한 건 처음 알았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학생 2: 처마의 기능 설명이 인상 깊었어. 여름 햇빛은 막고 겨울 햇빛은 들인다니, 에어컨이나 히터 없이도 쾌적하게 지내려는 노력이 엿보여.

학생 3: 기단이 습기를 막는다는 건 좀 의외였어. 그냥 집을 높이려고 만든 받침대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 한옥을 찾아가서 기단을 유심히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감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현대의 냉난방 기술과 연결 지어 이해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추론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고, 추후 활동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 중 특정 구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해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가 마지막에 제안한 방식을 수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8-42] 다음은 학생회의 토의와 토의에 사용한 자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장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회장: 안녕하세요, 학생회 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중앙 현관 옆에 위치한 '학생 자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공간이 학생들의 휴식처나 자치 활동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부분 통로처럼 이용되거나 비품을 쌓아두는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아 학교 측에 건의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장: 네, 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딱딱한 나무 의자 몇 개뿐이라 학생들이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폭신한 소파를 설치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터디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가벽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기획부장: 좋은 생각입니다. 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관리가 안 되면 금방 지저분해질 거예요. 공간 사용 수칙을 정하고, 학급별로 '자치 공간 관리 주간'을 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운영 제도를 제안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공간을 관리하면 책임감도 커질 것입니다.

복지부장: 자율 운영 제도요? 좋은데요. 하지만 학생들이 잘 참여할까요?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우수 학급에 소정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학생회장: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복지부장님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기획부장님은 자율 운영 제도를 제안해 주셨네요. 그리고 복지부장님이 보완 의견으로 참여 유도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부장: 건의문에 우리 의견만 담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의문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생회장: 맞습니다. 그럼 토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건의문 초고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의에 사용한 자료들처럼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간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도 찾아서 초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집한 자료]

[자료 1] 학생 자치 공간 이용 실태 설문 조사 (전교생 300명 대상)

Q1. 현재 자치 공간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 (65%) / 불만족 (20%) / 보통 (10%) / 만족 (5%)

Q2. 불만족 이유 (복수 응답)

휴식 및 편의 시설 부족 (175명)

공간 관리 미흡 (140명)

학습/휴식 등 공간 미분리 (90명)

[자료 2] 청소년 공간 전문가 인터뷰 기사 (일부 발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자율'입니다. 공간의 주인이 학생 자신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간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다)

학생 자치 공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건의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000입니다. 저희 학생회는 중앙 현관 옆 '학생 자치 공간'이 현재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건의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현재 공간은 딱딱한 의자뿐이어서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휴식 및 편의 시설 부족"을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빈백 소파 등을 설치하고, 스터디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가벽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율적 공간 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간 사용 수칙을 정하고 '자치 공간 관리 주간'을 통해 직접 환경을 관리한다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율 운영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리 우수 학급을 선정하여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샘표 마루'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학생 자치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학교 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8. (가)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회장'은 토의 안건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복지부장'은 다른 참여자의 제안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 ③ '기획부장'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과 장기적 해결책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회장'과 '기획부장'은 공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⑤ '복지부장'과 '기획부장'은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학생회장의 제안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9. (가)의 토의 내용을 (다)의 초고에 반영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복지부장'이 제안한 '가벽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다)의 2문단에서 '가벽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② (가)에서 '기획부장'이 제안한 '자율 운영 제도'는 (다)의 3문단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율적 공간 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 ③ (가)에서 '복지부장'이 제안한 '관리 우수 학급에 소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은 (다)의 4문단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의 예시로 반영되었다.
- ④ (가)에서 '기획부장'이 언급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의 2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 ⑤ (가)에서 '학생회장'이 언급한 '비품을 쌓아두는 장소로 변질'된 문제점은 (다)의 1문단에서 '통로처럼 이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40. 학생회장이 (다)의 초고를 작성할 때 (나)의 자료를 활용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의 Q1 응답 비율을 (다)의 1문단에 제시하여, 건의문을 쓰게 된 배경의 심각성을 부각하였다.
- ② [자료 1]의 Q2 응답 결과를 (다)의 2문단에 제시하여, '빈백 소파'와 '가벽' 설치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1]의 Q2 응답 결과를 (다)의 3문단에 제시하여, '자율 운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 ④ [자료 2]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다)의 3문단에 직접 인용하여, 학생들의 '주인의식' 함양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다.
- ⑤ [자료 2]의 전문가 의견을 (다)의 4문단에 제시하여, '소정의 혜택' 제공 방안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41. <보기>는 (다)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를 반영하여 (다)를 수정·보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다)의 마지막 문단에 '쉽표 마루'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글의 앞부분에서 이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미리 밝혀주면 글 전체의 통일성이 높아질 것 같아.

학생 2: (다)의 3문단에서 '학생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도 함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의 [자료 2]에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 '자율 운영 제도'의 효과를 강조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 ① 1문단의 '학생 자치 공간'을 언급한 뒤, '이 공간에 쉽표 마루라는 이름을 붙여 학생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② 3문단의 '주인의식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자료 2]의 전문가 의견처럼,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공간 활성화의 핵심입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한다.
- ③ 1문단의 '학생 자치 공간'을 5문단과 통일하여 '쉽표 마루'로 수정하고, 5문단에서 '쉽표 마루'의 의미를 밝혀주는 표현을 넣는다.
- ④ 3문단의 '자율적 공간 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앞에, [자료 2]의 내용을 활용하여 '전문가에 따르면 공간의 주인이 학생임을 인식시키는 '자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1문단에 '쉽표 마루'의 명칭과 의미를 추가하고, 3문단에 [자료 2]의 '자율 운영 시스템'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 주장을 강화한다.

42. 다음은 (다)의 '마지막 문단'을 <조건>에 따라 고쳐 쓴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건의가 수용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포함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의 인상을 높일 것.
- 건의의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긍정적 검토를 요청할 것.

- ① 위와 같이 건의한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이 수용된다면 '쉽표 마루'는 학생 자치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② '쉽표 마루'가 학생들의 지친 마음에 오아시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한 공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생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 ③ 학생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은 학생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 ④ 저희는 학생 자치 공간의 활성화를 건의합니다. 이 공간이 학생들에게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⑤ 학생 자치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쉽표 마루'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3~45] 다음은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학생의 생각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생각

교내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틈새 공간' 문제를 주제로 글을 써야겠어. 우선 중앙 현관 옆 공간이나 연결 통로 등이 쓰레기 적치 장소로 변질되어 미관을 해치고, 학생들의 휴식 공간도 부족하게 만든다는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해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휴게실'이나 '미니 갤러리'처럼 공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용도를 제안하는 내용을 넣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틈새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제안하고,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촉구하며 마무리해야겠어.

학생의 초고

우리 학교에는 중앙 현관 옆 넓은 공간이나 본관과 별관을 잇는 연결 통로처럼, 용도 없이 방치된 '틈새 공간'이 여러 곳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조명도 어둡고 관리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부는 쓰레기나 방치된 비품의 적치 장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점심시간이면 쉴 곳을 찾아 복도를 서성이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틈새 공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틈새 공간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 현관 옆 공간은 조명을 밝게 하고 폭신한 소파를 비치하여 '소규모 휴게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관과 별관의 연결 통로는 '미니 갤러리'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간 조성에는 학교 측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공간을 채울 아이디어만큼은 학생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회와 학교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틈새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잠자는 공간을 학생들의 쉼터로 깨우는 일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3. '학생의 생각'이 초고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틈새 공간' 문제를 주제로 삼고 '중앙 현관'과 '연결 통로'의 현황을 지적하겠다는 생각은 1문단에 반영되었다.
- ② '미관을 해치고' '휴식 공간도 부족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생각은 2문단에 반영되었다.
- ③ '소규모 휴게실'이나 '미니 갤러리'를 제안하겠다는 생각은 3문단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영되었다.
- ④ '디자인 공모전'을 제안하겠다는 생각은 4문단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반영되었다.
- ⑤ '쓰레기 적치 장소로 변질'된 현황을 지적하겠다는 생각은 2문단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라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제목은 글의 핵심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줘야 해. 문제 상황과 글쓴이가 제안하는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특히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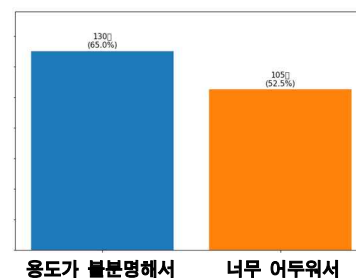
- ① 잠자는 '틈새 공간', 학생들의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깨워야
- ② 교내 미관을 저해하는 틈새 공간, 이대로 괜찮은가?
- ③ 학생 휴식 공간 부족 문제의 현황과 구체적 해결책
- ④ '틈새 공간 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제안합니다
- ⑤ 휴게실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학교 틈새 공간 활용 백서

45.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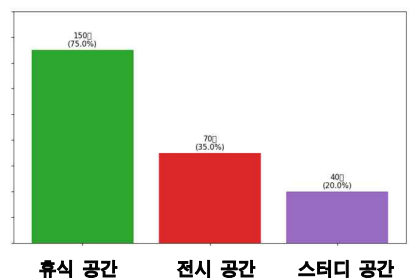
< 보 기 >

[자료 1] 학생 대상 설문 조사 (200명, 복수 응답)

ㄱ. 틈새 공간이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ㄴ. 틈새 공간에 가장 필요한 기능은?



[자료 2] OO고교 사례 (학교 신문 기사)

"OO고는 최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한 '학교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를 통해 복도 끝 틈새 공간을 '폴딩 도어(접이식 문)'가 설치된 세미나실로 개조했다. 평소에는 개방하여 휴식 공간으로 쓰다가,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시에는 문을 닫아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 ① 1문단에 [자료 1]의 ㄱ에서 너무 어둡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활용하여 틈새 공간이 방치되는 원인을 추가한다.
- ② 2문단에 [자료 2]에서 언급된 폴딩 도어의 장점을 추가하여 문제의 시급성을 부각한다.
- ③ 3문단에 [자료 1]의 ㄴ을 근거로 휴게실과 갤러리를 조성하였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임을 강조한다.
- ④ 3문단에 [자료 2]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 현관'에는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연결 통로'는 '세미나실'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 ⑤ 4문단에 [자료1]의 ㄴ과 [자료2]를 활용하여, 공모전이 틈새 공간을 학업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수능맛집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 형성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으로 나뉜다. 이 중 '파생'은 어근에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품사를 바꾸지 않고 의미만 더하는 과정을 말한다. 파생 접사는 어휘적 의미를 더하며, 특정 어근에만 결합하는 등 결합에 제약이 있다.

한편, 용언의 어간에 굴절 어미가 결합하는 것은 '활용'이라 부르며,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만 달리하는 동일한 단어의 여러 형태를 만든다. 굴절 어미는 문법적 의미를 더하며, 대부분의 용언 어간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그런데 국어에는 형태가 동일하나 기능이 다른 동음이의 형태소들이 존재하여 문법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 대표적인 예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으)ㄴ의 두 가지 지위이다. -(으)ㄴ은 명사를 만드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 기능하기도 하고,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서술성의 유무이다.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은 굴절 어미의 일종이므로, 결합한 후에도 여전히 용언의 성질, 즉 서술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면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은 어근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명사를 만들므로, 용언의 서술성을 상실한다.

서술성의 유무는 수식어의 종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다. 서술성을 유지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구성인 용언의 명사형은 용언처럼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서술성을 잃고 명사로 굳어진 '파생 명사'는 체언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또한, 파생 명사는 어휘화(語彙化)된 것이므로 사전에 등재되거나 복수 접미사 '-들'과 결합할 수 있지만, 용언의 명사형은 그렇지 않다.

35. 윗글에 대해 이해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사형 전성 어미'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달리, 결합하는 용언 어간에 큰 제약이 없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 ②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은 어근의 품사를 동사나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③ 용언의 명사형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후에도 용언의 서술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 ④ '늦밤'의 '늦-'과 '덧개'의 '-개'는 모두 파생 접사이지만, '늦-'은 '덧개'의 '-개'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 ⑤ 형태가 동일한 -(으)ㄴ이 두 가지 다른 문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해당 형태소가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ㄴ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나는 어제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했다.
- ㄴ. 그는 그림을 빨리 그림으로 유명하다.
- ㄷ. 차가운 바람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 ㄹ. 그가 약속을 지켰음이 분명하다.
- ㅁ. 그녀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 ① ㄱ의 '아름다운'과 ㅁ의 '깊은'은 뒤따르는 '그림'과 '믿음'을 각각 수식하므로, ㄱ과 ㅁ의 '-(으)ㄴ'은 파생 접미사로 볼 수 있다.
- ② ㄴ의 '그림으로'는 '그림을'을, ㄹ의 '지켰음'은 '약속을'을 각각 필요로 하여 서술성을 유지하므로, ㄴ과 ㄹ의 '-(으)ㄴ'은 굴절 어미로 볼 수 있다.
- ③ ㄱ, ㄷ, ㅁ은 ㄴ, ㄹ과 달리 복수 접미사 '-들'과 결합할 수 있는 어휘들이 있으며, 이는 해당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될 수 있음을 뜻한다.
- ④ ㄴ의 '그림으로'는 '빨리'의 수식을 받는 반면, ㅁ의 '믿음'은 '깊은'의 수식을 받으며, 이는 두 어휘에 사용된 '-(으)ㄴ'의 문법적 지위가 다름을 보여준다.
- ⑤ ㄱ의 '그림'과 ㄴ의 '그림으로'의 '그림'은 모두 용언의 어간 '그리-'에 '-ㄴ'이 결합한 것이지만, 서술성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37. <보기>의 문장에서 품사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가 새 책을 읽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

- ① '새'는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다.
- ② '을'은 활용을 하지 않고 앞말에 붙어 다른 말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다.
- ③ '읽고'는 활용을 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 ④ '슬픈'은 형태가 변할 수 있고,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 ⑤ '감정'은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38.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1 —

조사는 체언에 결합하여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 중 부사격 조사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부사어는 장소, 시간, 대상, 도구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쓰임이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유정물일 경우 ‘에게’를, 무정물일 경우 ‘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유정물과 무정물 모두에 ‘에/애’가 널리 쓰였다. 다만, 부사어의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현대 국어의 ‘께’와 같이 ‘씨’를 사용하였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東宮(동궁)애 가시니 [동궁(궁궐)에 가시니]

°아들에 널오디 [아들에게 이르되]

— < 보기 2 —

- ㉠ 흐르 비 虛空(허공)애 올라 [하루는 허공에 올라]
 ㉡ 네 아버지씨 가아 [네 아버지께 가서]
 ㉢ 이쁘들 아들에 전히고 [이 뜻을 아들에게 전하고]
 ㉣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었다.
 ㉤ 그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지만, 고양이는 집에만 있었다.

- ① ㉠의 ‘애’는 ㉢의 ‘우체통애’의 ‘애’와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정물임을 나타낸다.
 ② ㉡의 ‘씨’는 <보기 1>의 설명에 따라, 부사어의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현대 국어의 ‘께’와 같이 쓰인 것이다.
 ③ ㉢의 ‘에’는 ㉣의 ‘친구에게’의 ‘에게’와 기능적으로 대응하지만, 유정물에 결합한 조사의 형태가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④ <보기 1>의 용례와 달리 ㉢은 모두 부사어의 대상이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에 따라 다른 형태의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⑤ ㉤의 ‘고양이에게’는 <보기 1>의 예시인 ‘아들에’와 달리, 부사어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므로 현대 국어에서 ‘에게’가 사용된 것이다.

39. 다음 중 관형절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이것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이다.
 ②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③ 우리가 내일 모두 함께 갈 곳은 부산이다.
 ④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인기가 많다.
 ⑤ 이 노래는 내가 어릴 적 매일같이 들던 곡이다.

- [40-42] 다음은 학교 방송부(BBS)의 공식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이를 본 학생들의 온라인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bbs_broadcasting · 팔로우

13시간 전

🔔 2025 신입 부원 공개 모집! 📢

안녕하세요! 학교의 목소리, 방송부 BBS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끼로 학교의 1년을 채워나갈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 **아나운서부:** 학교의 아침과 저녁을 책임질 명품 목소리의 주인공!
- **PD부:**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방송의 A to Z를 책임질 리더!
- **엔지니어부:** 최상의 방송 퀄리티를 위한 숨은 실력자!

[모집 일정]

- 서류 접수: 3월 10일(월) ~ 3월 14일(금) 17:00까지
- 면접: 3월 17일(월) 대상자 개별 통보

[지원 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송실 앞 제출함에 직접 제출.

[Q&A]

Q. 3학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쉽지만 PD부는 1, 2학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여러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나의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년도 축제 영상 링크 [<https://bbs.edu.kr>]

#OO고등학교 #방송부 #BBS #신입부원모집 #아나운서 #PD #엔지니어 #많은부

👍❤️ 74명이 좋아합니다



좋아요



댓글

(나)

애들아, 방송부 신입 부원 모집 공고 뒀더라.

예지

채령

헐 대박. 나 PD부 지원해 볼까 하는데. 경쟁률 많이 높겠지?

유나

㉢작년에 PD부가 제일 경쟁률이 높았대. 3학년은 지원 못하는 거 아쉽다. 2학년 때 지원해 볼걸.

류진

나는 아나운서부 하고 싶은데... 근데 지원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

채령

게시물 다시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래.

유나

㉡근데 게시물에 있는 작년 축제 영상 보니까 엔지니어부 완전 멋있던데?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는 거.

채령

㉠맞아. 근데 엔지니어부는 기술 같은 거 잘 알아야 하지 않아? 좀 어려워 보여.

예지

내 친구 형이 작년에 엔지니어부였는데, 기계 잘 몰라도 선배들이 다 알려준대.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

채령

오 진짜? 그럼 예나도 엔지니어부 생각해 봐! 우리 같이 지원하자!

예지

40. (가)의 매체 활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각 모집 분야의 활동 내용을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③ 댓글 기능을 통해 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④ 지원서 양식 파일을 직접 첨부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되는 부서의 모집 마감 임박을 알리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용언 어간 '책임지-'에 관형사형 어미 '-리'이 결합하여 뒤따르는 체언 '리더'를 수식함으로써, PD부가 수행할 역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형용사 어근 '신중-'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부사어가 서술어 '선택해 주세요'를 수식하여, 선택 행위의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 ③ ㉢: 종결 어미 '-대'를 사용하여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PD부의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 ④ ㉣: 부사 '완전'이 서술어 '멋있던데'를 수식하여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엔지니어부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관형사 '같은'이 의존 명사 '거'를 수식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부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2. <보기>의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원서를 쓴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지원서에는 단순히 희망하는 분야를 나열하는 것보다, 방송부 활동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나 배우고 싶은 점을 연결해서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진솔하게 작성해 보세요.

- ① 작년 축제 영상에서 본 엔지니어부 선배님들의 역동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 되어 최첨단 방송 장비를 다루며 학교 행사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② 엔지니어부는 최상의 방송 퀄리티를 위한 숨은 실력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므로, 방송 장비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방송 사고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 ③ 평소 영상 편집과 카메라 촬영에 관심이 많아 관련 기술을 꾸준히 익혀왔습니다. 엔지니어부에서 활동하며 제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부 영상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 ④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 지원을 망설였지만, 열정만 있다면 선배님들께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상의 방송 퀄리티를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⑤ 방송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부는 방송 시스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모든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3-45] 다음은 온라인 영상의 일부와 해당 영상의 내용을 반박하는 학교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면 1



커피 마시면 정말 키 안 클까?

화면 2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성장판을 닫히게 만든다는 속설!

화면 3



커피 때문에 키 안 컸다는 친구들 꼭 있음!

화면 4



성장기 청소년, 커피는 무조건 피해라!

(4)

≡

◇◇학교 신문

Q

[팩트체크] 커피와 성장의 상관관계, 진실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면 키가 크지 않는다’는 속설을 담은 짧은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된 공포’라고 지적한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이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용량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다. 우리가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양으로는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총 칼슘 섭취량’과 ‘균형 잡힌 식단’

성장기 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과 영양이다. 특히 뼈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의 총 섭취량이 훨씬 중요하다. 2022년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량과 최종 신장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칼슘과 단백질 섭취량은 신장 발달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커피보다 나쁜 식습관을 경계해야

결론적으로,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가 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속설은 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은 커피가 아닌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과도한 당분 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극적인 정보에 현혹되기보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43. (가)의 매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면 1은 구체적인 상황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고 질문 형식의 자막을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화면 2는 핵심 개념을 시각적 그래픽으로 단순화하고 자막으로 부연하여 속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화면 3은 특정 집단의 경험담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관련 영상을 빠르게 교차 편집하여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화면 4는 금지를 나타내는 시각 기호와 단정적인 문구의 자막을 결합하여 제작자의 최종적인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화면 2는 과학적 실험 결과에 대한 자막을 통해 카페인에 칼슘 흡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속설을 반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온 과정을 제시하고,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각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다.

45. (가)와 (나)의 내용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보 수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나)는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정보 수용자의 감성에 호소하여 주장을 전달하고, (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의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며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 ③ (가)는 정보 수용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전달 내용을 이해시키고, (나)는 상반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④ (가)는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나)는 내용의 현실성을 부각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 수용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담을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